

이재명 대항마 경쟁...정세균·이낙연 민심공략 가속

정세균, 전국 돌며 존재감 부각
이재명 연일 저격하며 차별화
“역전 드라마 충분히 쓸수 있다”

이낙연, 쓴소리 경청·정책 준비
지나주 광주·부산·강원도 방문
“구도는 얼마든지 바뀔수 있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1강 독주 구도를 형성한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민심 행보에 뛰어들면서 대선 레이스가 예열되고 있다.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는 모두 호남 출신에 국무총리를 지내고 점잖고 온화한 이미지까지 닮은 꼴이다. 하지만 이 같은 비슷한 이력과 이미지 때문에 두 사람은 상호 보완적이라기 보다 절대적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탈락해야 ‘이재명 대항마’로 부상하면서 차기 대선 행 티켓을 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두 사람의 경쟁 구도가 칼 끝을 걷는 치열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전 대표의 경우 10%를 오르내리는 지지율이 한 자릿수대로 고착화된다면 대선 경쟁 구도에서 탈락할 수 있다. 정 전 총리도 최소한 5% 이상의 지지율 상승을 견인하지 못한다면 존재감을 잃을 수 있다.

결국 경쟁에서 살아남은 한 사람이 친문 주류와 강성 당원에 남아 있는 ‘이재명 비토’ 정서를 지렛대 삼아 대역전극을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대선 레이스 초반부터 총력전을 펼치며 반전의 계기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우선 4-7 재보선 패배 이후, 잠행을 이어가고 있는 이 전 대표는 26일부터 주로 서울에 머물며 쓴소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6일 부산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상공인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리 경쟁 일정과 정책 준비를 병행할 예정이다. 지난 주에는 광주·전남, 경북 울진, 강원도 삼척·고성, 부산 등 민생현장을 방문했다. 5·2 전당대회가 끝나면 대권 주자로서의 공개 행보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다음 달 10일께 스킵캠프 정책 심포지엄을 앞두고 신복지제도 같은 정책 어젠다를 가다듬는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담집도 다음달 중순께 출간할 예정이다. 특히, 이 전 대표는 지난 23일에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독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최근 “죽는 한이 있더라도 문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도 화자됐다. 이 전 대표는 “이낙연계” 의원들을 일일이 찾아가 만나

는 것은 물론 광주·전남지역 의원들과 전화통화 및 면담 등을 통해 스킵십도 강화하고 있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1강(이재명), 1중(이낙연), 기타 후보들로 구도가 만들어졌지만 경선 전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구도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이번 주 부산, 대구, 광주·전남, 대

전을 차례로 방문한다. 26일 부산에서는 지역 상공회의소, 부산 항만·해운 노조를 찾아 경제 전문성을 부각시켰다. 27일 대구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장과 임시선별 진료소를 방문한다. 지난해 2월 대구 코로나19 확산 당시 국무총리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20여일간 대구에 머무른 경험을 앞세워 지역 민심에 가까이 다가간다는 구상이다.

28~29일 광주·전남 방문에서는 바이오산업 현장 방문, 광주대 특강 등이 예정돼 있다. 특히, 정 전 총리는 기존의 점잖은 이미지를 벗고 최근 며칠 사이 러시아 백신 문제 등을 고리로 이 지사를 연일 공개 비판, ‘저격수’로 변신한 상황이다.

정 전 총리 측 관계자는 “5·2 전당대회가 마무리되면 준비된 대권주자인 정 전 총리의 역량이 부각될 것”이라며 “지금은 지지율 측면에서 뒤지고 있지만 풍부한 경험과 안정된 리더십을 바탕으로 호남과 주류 진영의 지지만 이끌어 낸다면 대역전 드라마를 충분히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 22일 강원 삼척시 신남마을을 방문해 태풍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 절반 “러시아 백신 도입 필요하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38% “불필요”
문 대통령 부정평가 63% 역대 최고

국민 절반은 코로나19 러시아 백신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지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러시아 백신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51.1%로 과반을 차지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38.3%였다. ‘잘 모르겠다’는 10.6%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50대와 40대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각각 57.8%, 57.2%로 우세하게 나타났다.

반면 60대(필요 44.1% vs 불필요 40.4%)와 70세 이상(필요 43.9% vs 불필요 39.3%), 20대(필요 48.8% vs 불필요 40.0%)에서는 찬반이 팽팽하게 집계됐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보다 0.9%포인트 떨어진 33.8%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1.5%포인트 오른 63.0%로 집계되며 최고치를 경신했다. 공·부정평가 차이는 29.2%포인트였다.

이와 관련, 리얼미터 관계자는 “러시아산 백신 수급 논란과 지자체 독자 방역 움직임 등, 최근 코로나19 대응 관련 흐름이 대통령 긍정 평가 요인에 균열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는 보합세를 유지했다. 국민의힘이 전주보다 0.5%포인트 떨어진 36.6%로 선두를 지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주보다 0.7%포인트 오른 30.7%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7.6%, 열린민주당 5.1%, 정의당 3.9%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1.9%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민주 당권주자 신경전 최고조...물고 물리는 삼각 난타전

춘천 마지막 합동연설회

혁신안·민생 이슈 치열한 기싸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 열기가 후보 합동 연설 마지막 날인 26일 절정으로 치달았다.

홍영표·송영길·우원식 후보(기호순)는 이날 오전 강원 춘천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당 혁신안과 민생·개혁 이슈를 놓고 치열한 막판 기 싸움을 벌였다.

그간에는 홍·우 후보가 ‘반송 연대’를 구축, 협공을 펴는 ‘송 대 반송 구도’가 펼쳐졌으나 이번엔 공조 전선이 무너지고 ‘물고 물리는’ 삼각 난타전이 어지럽게 전개됐다. 표심 쟁탈 열기가 최고조에 달한 것이다.

‘선공’은 우 후보가 폈다. 그는 전날 밤 페이스북에서 “홍 후보도 혁신을 말하지만 혁신의 의지와 비전, 노선이 보이지 않는다”며 “국민은 홍 후보를 혁신의 얼굴로 보지 않을 것”이라고 홍 후보를 정조준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확실히 민생의 방향으로 간다’는 표지판을 세워야 하는데 홍 후보에게 그런 방향성을 찾기는 어렵다”라고도 했다. 그는 송 후보를 향해서는 “불안하다. 경인운하, 신한울 3·4호기 재개 등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과 민주당의 가치와 맞지 않는 주장을 남발한다”며 “여전히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말로 자신이 주목받길 원하는 모습”이라고 비교했다.

그러자 홍 후보는 이날 연설에서 송·우 후보를 각각 겨냥해 “불안한 당 대표를 안 됩니다”, “우유부단한 리더십도 안 됩니다”라고 싸잡아 비난했다. 이어

송 후보를 겨냥, “문재인 정부가 아무 일도 안 한 것처럼 ‘다 바꾸겠다’, ‘민생을 챙기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런 말 하지 말라”고 소리쳤다.

송 후보는 우·홍 후보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당 원내대표를 차례로 지낸 점을 거론하며 파고들었다. 그는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으로 서 동해북부선(강릉·제진)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그렇게 주장했지만, 당시 당 지도부가 뒷받침을 제대로 못 했다”며 “만시지탄이다. 제가 당시 지도부였다면 바로 시행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 후보는 “저는 (당 대표 선거에서) 두 번 떨어졌다.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뛰고 있다. 우스갯소리로 (이번에도 떨어지면) 연안부두에 가겠다”고 했는데 가지 않도록 하겠다”며 읊소 전략을 펴기도 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31%·이재명 24%·이낙연 11%

사회여론연구소 대권 적합도 조사
정세균 전 국무총리 4.0%로 올라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양강체제를 이어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23~24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0명에게 대선 후보 적합도를 물어본 결과, 윤 전 총장은 31.2%로 1위를 기록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4.1%로 2위에 올랐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11.1%로 3위였다.

이어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5.6%),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4.9%), 오세훈 서울시장(4.7%), 정세균 전 국무총리(4.0%),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2.5%) 순이었다. 윤 전 총장과 이 지사의 지지율은 KSOI의 지난주 조사 결과 대비 각각 2.5%포인트, 3.0%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적합 후보가 없다’는 응답은 4.1%였고, ‘잘 모르겠다’는 2.0%였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면 된다. /연합뉴스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
한수원이 만들어 갑니다

요즘 내 친구 한수원이 엄청 바빠요!

미세먼지 깨끗하게 청소하고

고장난 날씨도 고쳐주고

아픈 자를 낫게 해주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 만들고 있거든요

한국수력원자력주